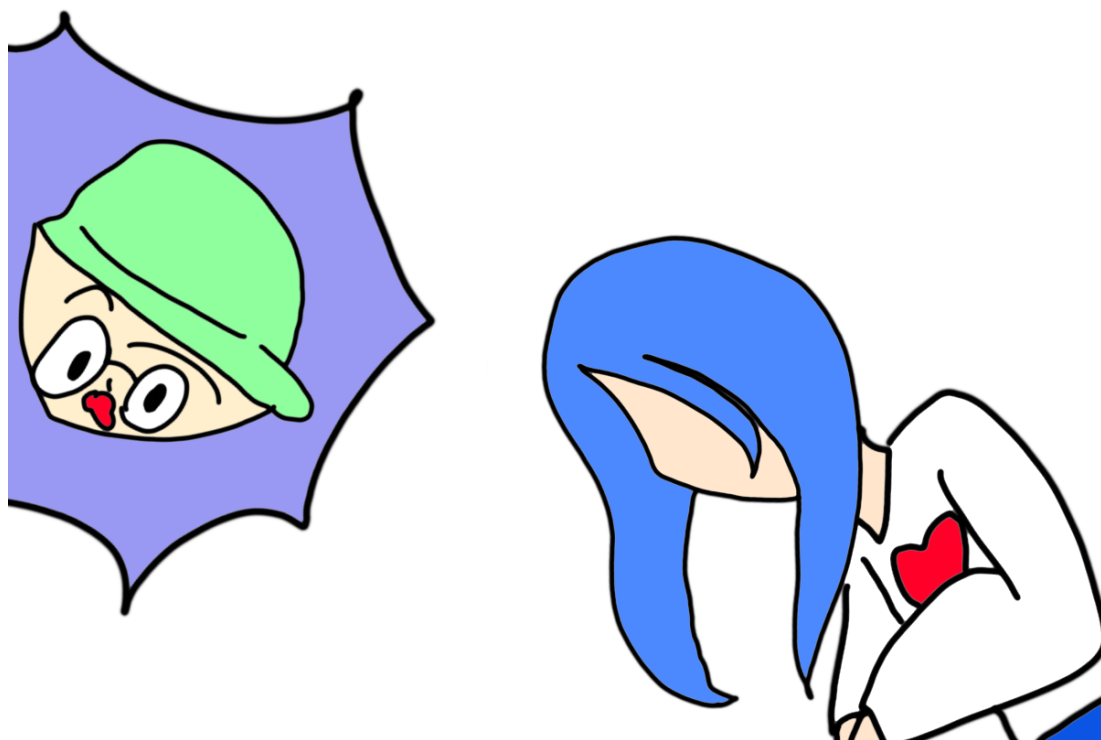


제 1 장

도서관

OOOO년 10월 13일 화요일, 별빛도서관에서 오후 9시에 직원이 화장실에서 여성을 발견했다. 이름은 수연. 피해자였다. 수연은 오후 9시 2분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오후 9시 5분에 병원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아... 아... ". 수연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 수연의 친구인 예리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직원은 그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이 잠겨있었고, 머뭇거리다가 직원은 경찰에게 신고했다.

OOOO년 10월 13일 화요일, 별빛도서관 오후 9시 그 시각에 직원이 소리를 쳤다. 남자화장실을 확인하는데 2번째 칸이 잠겨있었다. “거기 누구 계세요?” 직원은 침착하게 물었다. 그렇지만 대답은 없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거기 있으시다면, 문을 세 번 쳐주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직원은 ‘그냥 누가 잠그고 갔나?’ 라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그 여성은 수연이었다. 오수연. 9시 2분,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다. 9시 5분, 수연은 병원에서 나와 경찰과 대화를 하려 했다. 그렇지만, 수연의 목소리는 충격 때문인지 잘 나오지도 않고 식은 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수연에게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아... 아... ㅇ...” 경찰들은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경찰 중 한 명이 무언가를 떠올렸다.



테이프로 대충 대충 붙여 놓은 포스터에 써 있던 말,

‘추리천재 메리!!! 모든 사건을 해결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 대신
에 1000원을 내세요. 전화번호 010-1367-1345’

정말 엉터리 포스터였다.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전화번호 쪽지 중
하나를 뜯어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기억이 났다. 경찰이 메리에
게 전화를 거는 시각, 11시 30분, 경찰이 핸드폰으로 번호를 하나
하나, 그리고 마지막 5를 누르고 ‘통화’를 눌렀다. 그 순간, 메리의
방엔 메리가 알람 소리라고 착각할 정도의 전화소리가 울려 퍼지
기 시작했다. 메리는 10살짜리 애가 ‘5분만 더’ 라고 때쓰는 것처
럼 베개로 귀를 막았다. 그 순간 메리는 자신에게 전화를 할 사람
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전화는 경찰에게 온 것이었다.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설마, 날
체포하려는 건가?’ 미래를 모르는
메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메리는 두려움에 공포에 싸인 채
통화를 눌렀다.



메리의 마음은 두근! 두근! 두근! 거렸다. 왜냐하면, 그 것은 자신을 체포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메리는 흥분했다. 이 일이 난생 처음인 것도 모자라 경찰에게 온 부탁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런 말을 했다. “혹시, 메리씨 맞죠?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오후 11시에 전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별빛도서관에 올 수 있습니까?” 메리는 답변했다. “도.. 도서관이요?!?! 도서관은 닫혀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일 아침은 안되나요? 제가 지금 머리가 잘 안돌아갈거 같아서...” 그러자 경찰은 엄청난 답변을 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국집 쿠폰 3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메리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메리는 다시 말했다. “네~~~?!” 왜냐하면 메리는 중국집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일만 성공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중국집에서 보낼 수 있는 찬스였다. 사실 그것은 메리의 꿈이었기 때문이었다. 메리는 자신이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보라색 망토와 리본을 달고 설래는 마음으로 눈을 비비며 별빛도서관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메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눈을 태양만큼 반짝이면서 설래는 발걸음으로 가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새에 눈 앞에 별빛도서관이 보였다. 메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도... 도서관이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메리에요.” 경찰들은 깜짝 놀란 채로 이렇게 물었다. “혹시 몇 살이세요?” 이렇게 대답했다. “아 저요? 17살이요.” 경찰들은 눈이 빠지게 놀랐다. 탐정 치고는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었다. “혹시 이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까?” 메리는 그렇게 사연을 듣게 되었다. 그 순간 메리는 멘탈이 나가버렸다.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 “얘야, 여긴 너가 있기에선 넌 너무 어리단다.” 메리는 소리쳤다. “애라니요~ 저 이래도 고등학생이에요!!” 경찰들은 메리의 말에 반박할 수는 없었다. 어린이도 자신을 아끼라 부르는건 싫어하기 때문이다. 메리는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2층 남자화장실 두 번째 칸, 수연이라는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은 흰색 크래파스로 그려져 있었다. 메리는 너무나도 졸렸지만, 용의자를 찾아야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2층 남자화장실에 들렀던 모든 분들과, 수연씨의 친구라는 예리씨를 도서관에 불러올 수 있나요?” 메리는 수연씨와 예리씨가 도서관에 같이 갔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데려오라고 한 것이었다.

OOOO년 9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리씨 그리고 용의자들이 도서관 3층에서 모였다. 물론 그 중에 메리도 있었다. 메리는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도록 모인 사람들 주위를 돌고 있었다. 예리씨에게 물었다. “예리씨, 수연씨의 친구죠?” 예리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제가 수연이 친구예요.” 그리고는 혼잣말에 이렇게 말했다. “수... 수연아... 흑 흑 흑” 메리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 “혹시 메리씨랑 같이 도서관에 온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리씨는 이렇게 말했다. “수연이는 저와 아주 친한 친구예요. 죽지 않은게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말을 잃어서...” 그리곤 다시 이렇게 말했다. “수연이와 20살 기념으로 첫술을 먹고 있었어요. 기념이 좀 늦었어요. 9월 지나서야 했는데... 수연이는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는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 갔죠. 도서관 카페에서 주스를 시키고 책을 읽고 있는데, 수연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와서 2층 여자 화장실을 다 둘러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갔나?’라는 생각으로 전 아무렇지 않게 ‘수연아 너 어디야?’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나 이제 집에 갈게' 그리고 맘 편하게 집으로 갔죠.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전 지금 여기에 있죠. 제가 잘 상황 파악이 안되서 음... 수연이가 너무 불쌍하네요." 메리가 이렇게 말했다. "용의자는 5명, 꽤 적군요." 그리곤 경찰에게 메리가 말했다. "경찰님들? 혹시 공범이 있다는 생각이 안드나요?"

제 2 장

천재 탐정

경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공범?!” 경찰은 공범의 ‘공’자조차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범이라는 단어를 놓쳤기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했었다. 메리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수연씨는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남자 화장실에 있었죠. 남자 화장실에 있었다는 것은 딱 두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수연씨가 화장실을 가다가 한 명이 기절을 시켜서 남자 화장실로 데려갈 경우는 한 명이고, 이미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면 한 명이 그 화장실에서 꺼내 기절시켜 남자 화장실에 넣는 남자와 여자 공범이 있습니다.” 메리는 이렇게 말했다. “근데 왜 하필... 남자와 여자죠?” 메리는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다. “CCTV로 보면 남자 화장실에는 여자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자 화장실에는 남자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메리는 정확하게 알려줬다.

메리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천재 탐정이었다. 엄청난 추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생각하는 사고력을 좋아하고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던 메리는 모든 패턴을 단 10분만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진짜 천재 탐정이었던 것이다. 메리가 이렇게 천재 탐정이 된 것은 메리가 5살때부터 였다. 메리가 5살이었을 때, 4월 28일날 메리는 퍼즐을 보게 된다. 그 퍼즐은 어떤 퍼즐보다도 엄청나게 어려웠다. 그 퍼즐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아르키메데스의 퍼즐이었기 때문이다. 메리는 이상하게 자꾸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메리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르키메데스의 퍼즐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풀었다. 그 때 일로, 메리는 영재라는 별명이 생겼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퍼즐을 주었다. 메리는 그 퍼즐을 순식간에 풀었다. 메리는 그 당시 탐정 소설을 많이 좋아했다. 메리가 탐정 소설을 읽을 때 마다 종이가 하나 하나 넘어가는 소리가 메리의 귀에 들리고, 누군가가 말을 걸면 개미가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듯한 정도로 탐정 소설책에 집중했다. 그 때부터, 메리의 별명은 천재 탐정이 되었다. 메리는 핸드폰을 항상 확인한다. 메리는 '당신입니다!!' 라는 탐정 만화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애니를 볼 때도 있었지만, 만화책을 10권이나 샀다. 11권이 나오기를 기다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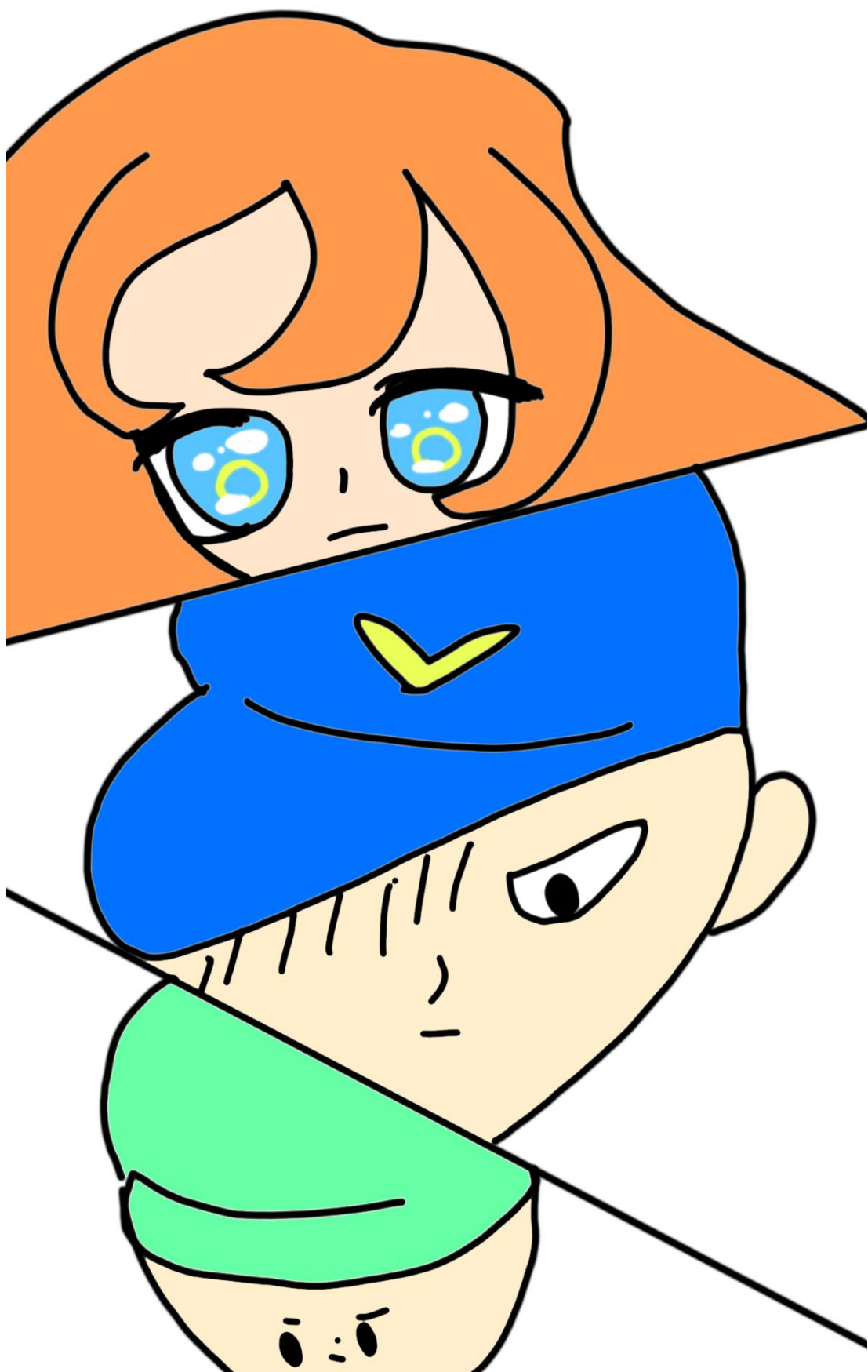
다. 중학교 때 ‘당신입니다!!’ 라는 만화가 완결되고, 탐정 웹툰을 보기 시작했다. ‘당신입니다!!’ 라는 만화만큼 흥미진진한 웹툰이었다. 메리는 24시간 그 웹툰에 빠져있었다. 중2병이 되었을 때, 자신은 웹툰 악마라며 유치하게 흑화한 적이 있었다. 지금의 메리는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새빨개졌다. 사실 메리에게 천재 탐정이라는 별명 말고 다른 별명이 있었다. 바로 고리눈 이었다. 메리는 어렸을 때부터, 눈에 노란색 고리가 그려져 있었다. 그 눈은 정말 아름다운 눈이었다. 중학교 때, 메리는 고백을 3번 정도 받아본 적이 있었다. 다 눈 덕분이었다. 메리에게서 가장 예쁜 부분은 눈이었기 때문에 메리는 좋은 별명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시 현재)

메리는 눈을 질끈 감고 생각하고 있었다. 메리는 수첩을 들고 용의자들의 말과 있었던 일들을 수첩에 적었다. 그날 밤, 메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메리의 눈에 고리가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땡~ 동~” 메리 엄마가 주문했던 치킨이 왔다. 메리는 수첩을 던져버리고 치킨을 돼지처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엄

마가 이렇게 소리쳤다. “너~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하고 그렇게 돼지처럼 먹다가 나중에 진짜 돼지가 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엄마는 아나운서다. 그래서 발음도 똑바르고 말도 정말 빠르다. 우리 엄마도 늙긴 했지만 계속 일하고 있다. 3년이 지나 내가 20살이 되면, 엄마는 아나운서를 그만 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100살이 되도 잔소리는 많을 것 같다. 어쨌든 치킨을 마구마구 먹은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요일이 왔다. 오늘 안에 일을 해결해야했다. 사실 메리에게는 생각해 둔 것이 있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다. 아침으로 어젯밤 먹다 남은 치킨을 한입에 넣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엄마는 빠르고 똑바른 발음으로 이런 잔소리를 했다. “아 맞다. 너 탐정 일 막 시작했지? 아주 그냥 탐정에 폭 빠졌어요~오~” 엄마는 메리를 놀리듯 말했다. 메리는 화가 났는지 남은 치킨을 다 입에 쑤셔 넣고 옷을 입고 나갔다. 일요일 아침 8시, 도서관 직원들과 경찰 그리고 나는 도서관에서 회의를 했다. 메리는 자신의 의견과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말했다.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생각한 것이 맞다면 범인은 누구입니까?” 메리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들과 경찰들은 너무 놀라 목이 쉬도록 비명을 질렀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이 되었다. 메리는 학교를 끝내고 도서관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메리야!!! 우리 같이 떡볶이 먹을래?" 메리의 가장 친한친구 민아였다. 메리는 떡볶이를 좋아하나, 위급한 상황이었다. 메리는 아주아주 많이 고민했다. 떡볶이VS도서관... 메리는 도서관.. 탐정의 길을 갔다. 눈앞에서 떡볶이를 놓쳤지만..... 메리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 이걸 나의 선택이야. 엄마의 선택으로 엄마는 아나운서가 되고 아빤 아빠의 선택으로 미국에 계시는 거야.. 후회하면 안돼!!' 초등학교 때 놀림받은 적이 몇 번 있었다. 남이 괴롭힘을 받을 때, 나의 선택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사람에게 선택은 딱 한번, 난 그 때부터 잘 된 선택을 많이 했다. 그치만 엄마 몰래 라면을 먹어서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을 때도 있었고, 시험을 빵점을 맞아서 혼난 적도 있었다. 심부름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나의 경험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았다. 그 때를 생각하면, 메리는 눈물을 흘린다. 그 때, 메리의 소중한 햄스터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었던 추억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햄스터의 이름은 햄이었는데, 메리는 그 때를 생각하면 열 번은 넘게 울 수 있었다. 메리는 너무 우울했다. 햄이의 마지막 1분을 메리의 품속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메리는 햄스터를 볼 때 마다 울음이 터졌

다. 햄이의 몸이 차가워지는 순간, 그리고 음식 햄을 먹는 순간, 울음을 터트린다. 메리는 햄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음식보다 싫어한다. 햄스터 이름이 햄이어서 그렇다. 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 차가운 고드름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온 몸에 전해지는 순간이 햄이를 생각할 때였다. 항상 그 때를 후회하고 있다.

(다시 현재)

난 오늘 학교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에 햄이 나왔기 때문이다.

제 3 장

금요일